가정의 달 '가족 영화' 쏟아진다

몬스터 vs 에이리언

美 개봉 2주만에 1억불 돌파 흥행 돌풍

케로로 더 무비 : 드래곤 워리어

케로로 탄생 10주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애니메이션 명가 드림웍스의 신작을 비롯해, 재패니메이션, 동물 다큐멘터리 등 장르도 다양하다.

오는 23일 개봉하는 '몬스터 VS 에이리언'은 '슈렉', '쿵푸 팬더' 등을 선보인 드림웍스가 내놓은 작품. 미국 개봉 당시 3D영화 사상 최고 기록으로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2주 만에 1억불을 돌파하며 몬스터급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다.

'몬스터 VS 에이리언'은 처치곤란이었던 몬스터들이 지구를 침략한 에이리언에 맞서 벌이는 활약을 그린 유쾌한 애니메이션으로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어디선가 날아온 운석을 맞고 키가 15미터로 커져버린 거대렐라, 불멸의 젤리 몬스터, 수명연장 실험을 하다 곤충의 머리를 갖게 된 똑똑하게 미친 과학자,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인 마초 몬스터 등이 주인공이다.

목소리 연기에는 주인공 거데렐라 역에 리즈 위더스푼을 비롯해 키퍼 서덜랜드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판에서는 한예슬이 거데렐라 역을 맡았다.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개구리 중사 케로로'는 극장판으로 영화팬들을 만난다.

1999년 단행본으로 시작되어 10년 동안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은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4번째 극장판 '케로로 더무비 : 드래곤 워리어'는 케로로 탄생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오는 30일 개봉한다.

전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아치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미국, 호주, 아프리카로 파견된 '케로로'와 '우주', '한별'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첫번째로 사라진 '타마마'를 찾기 위해 프랑스 몽생미셸로 떠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공각기공대' 제작진이 만든 제패니메이션 '초코초코 대작전'은 오는 5월 1일 개봉한다.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면?'이라는 기발한 상상에서 출발한 '초코초코 대작전'은 세상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되찾아주기 위해 지상 최대의 작전을 감행하는 두 소년의 박진감 넘치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영화에는 불법 초콜릿만을 색출하는 초콜릿 경찰과 로봇, 초콜릿 범죄자들만을 수감하는 감옥 등이 등장하며 비밀 조직을 만들어 초콜릿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유재석 등 스타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는 '리틀 비버'는 환상적인 숲 속에서 벌어지는 비버의 대모험을 그린 가족용 다큐멘터리로 오는 30일 개봉한다.

실제 캐나다 비버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리틀 비버'는 스타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 작품. 주인공 리틀 비버 역에는 개그맨 김구라의 아들인 김동현이 출연하며 해설을 맡은 유재석을 비롯, 이경규·김구라·김영철·이계인·윤형빈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특히 김동현은 이계인과 함께 '리틀 비버'의 주제곡인 '용감한 비버'도 함께 불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초코초코 대작전

공각기동대 제작진이 만든 제패니메이션

리틀 비버

비버의 숲속 모험 그린 가족용 다큐멘터리

새영화

노잉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

가족애·과학 버무린

재난 블록버스터

50년 전 한 소녀가 쓴 '예언서'에 따라 벌어지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과학자의 고군분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다.

1959년 윌리엄 도즈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모습을 그려 타임캡슐에 넣는다. 50년 후 학교 행사에서 그 타임캡슐을 열게 되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케일럽은 이상한 숫자가 나열된 종이를 받는다.

천체물리학자인 아빠 존은 그 종이에 쓰인 괴이한 숫자들의 조합에서 9·11의 날짜 및 사망 수와 일치하는 숫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숫자를 계속 연구하던 존은 아무렇게나 나열된 숫자가 지난 50년 동안의 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사망자 수라는 걸 알게 되고 숫자에 적힌 대로 일어나는 엄청난 참사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메가폰을 잡은 '다크 시티', '이아, 로봇'의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은 이 영화를 미스터리, 재난, 가족애, 종교와 과학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완성해 냈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